트럼프, 푸틴과 통화…안보보좌관은 대북경고

시진핑·아베 이어 전화
대북공조 논의 가능성
오브라이언 "군사강국" 언급
북 도발 자제 촉구 메시지

'성탄 선물'은 없었지만 심상찮은 행보를 이어가는 북한을 두고 미국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및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최근 전화통화를 하며 북한의 도발자제 및 대북공조 방안을 논의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통화했다. 같은 날 미국의 외교·안보 사령탑은 직접 미국의 군사력까지 거론하며 도발자제 및 비핵화 약속 준수를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전화통화를 통해 테러대응 협력 등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다고 크렘린궁이 이날 전했다. 통화는 러시아 측 요청으로 이뤄졌다. 북한과 관련한 논의 여부는 밝히지 않았지만 북한의 '새로운 길' 선택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 속에 북미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터라 관련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협상궤도 이탈 방지를 위한 대북대응 공조를 강조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러시아가 중국과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 완화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대북제재를 일단 유지한다는 미국과 보조를 맞출 것을 당부했을 것으로도 관측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시 주석과의 통화를 통해 대북대응을 논의한 데 이어 하루 뒤에는 아베 총리와도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 북한이 시한으로 못 박은 연말을 앞두고 성탄절을 전후해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직접 관련국 정상들과의 통화로 공조 체제를 점검한 셈이다.

같은 날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 ABC방송 인터뷰를 통해 미국의 군사력 수준까지 거론하며 대북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나 핵실험을 할 경우 미국의 대응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우리는 도구함에 도구가 많고 추가적 압박이 북한과 관련해 동원될 수 있다"면서 "김정은이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등의) 그런 접근을 취하면 우리는 엄청나게 실망할 것이고 실망감을 보여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여전히 최고의 군사강국이며 엄청난 경제력이 있다"고까지 했다.

미국의 대응 계획을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예고한 '선물' 없이 성탄절을 조용히 지나간 북한이 머지않아 고강도 도발을 시도한다면 미국의 군사·경제적 대응이 뒤따를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상황을 현실적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한 점도 눈에 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눈감아줬으나 레드라인이나 다름없는 장거리미사일 발사까지 무대응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정권교체가 없을 것이며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경우 경제적 발전과 함께 엄청나게 밝은 미래를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북한을 협상궤도로 되돌리려는 노력의 일환이자 북한이 고강도 도발에 나설 경우 미국의 대응에 대한 명분을 쌓아두려는 취지로도 해석된다. /연합뉴스

日국민 느끼는 한국 친밀도 5점 만점에 1.6점 역대최저

일본 국민의 한국에 대한 친밀도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마이니치신문은 연말을 앞두고 일본 전국의 유권자 2400명(유효답변 1285명, 유효답변 회수율 54%)을 무작위로 뽑아 올해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우편 여론조사를 했다.

이 신문이 30일 전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중국, 한국, 러시아 등 4개국에 대한 친밀도 평가에서 5점 만점에 한국은 1.9점(평균치)을 얻어 2014년 이 질문 항목이 포함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친밀감을 느낀다'를 5점, '느끼지 않는다'를 1점으로 환산해 평가한 한국 점수는 작년 10월 한국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한일 갈등이 본격화하기 시작할 당시의 상황이 반영된 작년 조사 때(2.1점)와 비교해도 0.2점 떨어졌다.

징용 배상 등 역사 인식을 둘러싼 양국 간 대립이 올해 들어 경제, 인적교류 등 여러 영역으로 확산한 것이 올해 친밀도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인이 느끼는 친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3.4점)이었고, 중국(2.1점)이 그 뒤를 이었다. 미국과 중국 점수는 각각 작년보다 0.2점 올랐고, 중국의 경우 올해 한국을 추월했다.

10년 후의 관계에 대해 '좋아질 것'을 5점, '나빠질 것'을 1점으로 평가해 계산한 결과에서도 4개국 가운데 한국이 가장 낮은 2.2점을 얻어 일본 국민은 대체로 미래 한일 관계도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중·러·이란 해군 합동훈련 중국과 러시아, 이란 등 3개국 해군 합동훈련이 28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인근 오만해에서 진행되고 있다. 3개국은 사상 처음으로 27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오만해와 인도양 북쪽 공해에서 해군 합동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기의 홍콩 친중파…"캐리 람 참모들 집단 사퇴 고려"

선거 참패 친중파 후보들
사무실서 쫓겨나고 일자리 '막막'

지난달 24일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의 압승과 친중파 진영의 참패라는 결과가 빚어진 후 홍콩 친중파 진영의 내분과 수난이 이어지고 있다.

3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행정장관 자문기구인 행정회의 구성원인 친중파 레지나 이프 의원은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행정회의 내에서 집단사퇴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프 의원은 "우리는 캐리 람 행정장관에게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집단 사퇴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하지만 람 장관은 우리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캐리 람 장관은 2017년 7월 취임 후 사회 저명인사, 입법회 의원 등으로 이뤄진 16명의 행정회의 구성원을 임명했으며, 이들은 행정장관에 대한 조언은 물론 실질적인 정책 결정에도 참여한다.

이프 의원은 "람 장관은 내각에 책임을 묻고 민심을 달래기 위해 내각 개편을 단행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과연 내각을 채울 적절한 인사를 찾을 수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람 장관이 송환법에 반대하는 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단지 '보류'한다고 했다가 9월에야 비로소 '철회'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친중파 진영은 구의원 선거 참패한 후보자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의 문제로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홍콩 내 친중파 정당 중 최대 세력인 민주건항협진연맹(민건련)은 200여 명에 달하는 선거 패배 후보와 그 보좌진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213〉 문언박

문언박(文彦博,1006~1097)의 자는 관부(寬夫)로 산서성 개휴 출신이다. 북송 인종, 영종, 신종, 철종 때의 명신이다.

인종 천성5년(1027) 진사에 급제해 전중시어사, 전운부사, 추밀부사, 참지정사 등을 역임했다. 패주 왕칙의 난을 진압한 공로로 재상직에 올랐다. 1051년 탄핵으로 물러났다가 1055년 다시 재상에 복귀했고 로국공에 봉해졌다. 신종이 즉위해 왕안석이 신법을 추진하자 "국체를 해치고 백성의 원망을 산다"며 반대했다. 철종 즉위후 평장군국중사를 제수받았다. 1097년 태자소보에 제수되었지만 병사했다. 휘종은 충렬(忠烈)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문로공집 40권을 남겼다.

황제가 되신 것은 인종 황제의 뜻이며 또한 황태후가 도와주신 공입니다. 신은 아무런 공이 없습니다."

영종이 그를 재상의 위에 두려 하자 이는 조정의 예법을 혼란케하는 일이라며 사양하였다. 신종이 즉위해 왕안석이 신법을 시행하였다. 그는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시역법의 폐단을 지적하며 사직하였다. 신종이 죽고 철종이 즉위하자 사마광이 재상이 되었다. 그는 학식과 덕망을 갖춘 원로인 문언박을 다시 중용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평장군국중사로 임명되어 6일마다 한번씩 입궁하고 1달에 두 번씩 황궁에서 경학을 강의하였다. 그의 사후 휘종때의 권신인 채경은 문언박, 여공저, 사마광 등을 원우당인(元祐黨人)으로 칭하고 그들의 저작의 배포를 금하였다. 휘종은 그의 공을 높이사 당적에서 제외하고 충렬이

북송 인·영·신·철종대 명신

소년시절 사소에게 경학을 배웠는데 사소의 모친이 그를 보고 '귀인이다'라고 평해 후대했다고 한다. 1027년 진사에 급제해 관직에 나왔는데 오래 지나지 않아 송과 서하의 전쟁이 일어났다. 하동전운부사로 부임해 산서성 인주의 보급로를 복원해 서하의 이원호 침입을 막을 수 있었다. 이원호가 열흘간 인주를 포위했지만 방어 태세가 완벽한 것을 알고 군대를 철수했다. 1047년 패주 왕칙이 봉기했는데 추밀직학사 명호가 진압하는데 실패했다. 그가 선문사로 임명되어 성아래에 땅굴을 파 성안으로 진입하는 방법을 써 왕칙을 체포했다. 이 공으로 재상에 올랐다.

재상이 되자 추밀사 방적과 더불어 8만명의 병력을 삭감하고자 하였다. 병력이 줄면 해직된 군인들이 모반을 일으킬 것을 걱정하는 의견이 많았는데 인종은 그의 주청을 가납하였다. 그러나 우려했던 병사들의 반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1056년 인종이 갑자기 발병하자 조정이 불안에 떨었다. 그는 침착하게 상황을 관리해 인종의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조정을 안정시켰다. 건강이 좋지 않은 인종에게 태자를 세울 것을 주청해 윤허를 받았다. 인종이 죽고 태자가 영종으로 즉위했다. 입궁한 문언박에게 말하기를 "짐이 태자가 된 것은 그대의 공이다." 그는 답하기를 "폐하께서

라는 시호를 하사했다.

그가 지방장관으로 있을 때 연회를 열고 밤늦도록 주연을 베풀었다. 병사들이 화가나 마굿간을 부수고 그 나무를 불쏘시개 감으로 썼다. 기세가 너무 험악해 장교가 이러한 정황을 보고했다. 연회의 손님들이 공포에 떨었지만 그는 태연하게 "날씨가 참 춥다. 마굿간이라도 부수어 불쏘시개 감을 찾을 만 하겠다"라고 말하며 개의치 않고 술을 계속 마셨다. 그러자 병사들의 기세가 누그러졌다.

재상이 되어 입궁하여 말하기를 "일찍이 폐하께서 관리들이 과도하게 승진운동을 하고 있다. 이를 억제하지 않으면 풍속이 어지러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손하고 겸허한 인재를 발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왕안석, 한유, 장괴를 추천해 모두 요직에 기용되었다.

어사 당개가 재상 문언박이 권력을 전횡하고 자신의 당파를 만든다고 주장하였다. 인종이 노하여 어사대로 보내 문책 받도록 하였다. 문언박은 황제에게 청하며 말하기를 "어사가 정무의 득실과 관리의 행동에 대해 발언하는 것은 당연한 직무이니 그에게 죄를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개는 좌천되었고 문언박도 재상에서 물러났다. 문언박이 재차 재상에 기용되자 맨 먼저 당개를 추천해 중앙의 요직에 발탁했다.